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통합 구독 서비스, 미디어 컬쳐 요금제 개시

집콕세대를 위한 '미디어 컬쳐 요금제' 신설, 인당 최대 2만원 할인 기기 추가 적용 시, 무제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 가능



U+ 미디어 컬쳐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넷플릭스, 지니뮤직을 **치킨 한마리 값**으로 한-번에 구독한다!

(본상품은 스마트폰 요금제이며 태블릿 1대를 추가 등록하여 데이터공유하기가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의 경우는 협의 진행 중이며 추후 가격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화원 고도령 기자] LG유플러스가 새해 들어 5G(5세대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통합 구독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5G·LTE 무제한 요금제 이용 등으로 통신비가 크게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LG유플러스 가입자로 끌어야겠다는 계산이다.

'미디어 컬쳐 요금제'는 U+ TV 의 넷플릭스 서비스 혜택의 성행에 따른 모바일 확장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해 '프리미엄 넷플릭스 HD요금' 외 U+ TV 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론칭 후 기록적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버전 확장을 통해 고객의 Pain Point 를 적중하는 '미디어 컬쳐 요금제(△10만4900원(VAT 포함)에 데이터 무제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재 국내 고객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레드,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뮤직 4가지 서비스를 중점으로 결합 출시한다.

기존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독할 경우, 넷플릭스(1인 기준 3625원), 왓챠(1인 기준 3225원), 유튜브 레드(월 14000원), 지니뮤직(월 8400원)으로 총 월 2만 9250원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컬쳐 요금제'의 경우 동일 서비스를 총 1만 9900원에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5G 프리미어 에센셜(△8만5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무제한, 음성통화 무제한, 메시지 기본 제공) 또한 포함되기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10만원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미디어 컬쳐 요금제 전용 혜택으로 이용 고객들은 '내 기기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 자신의 모바일 기기(휴대폰, 태블릿PC 등) 1대를 추가 등록하여 등록된 기기에서도 요금제에 포함된 OTT 및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컬쳐 요금제는 현재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레드, 지니뮤직 뿐 아니라, 국내 런칭 준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스포티파이 등 거대 미디어 서비스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고석진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최근 3년 간 OTT 서비스 및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급격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미디어 컬쳐 요금제는 이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고객 중심 LG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개들에게 각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LG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